

KODEX 바이오 ETF (244580)

Kodex 는 한국을 대표하는 ETF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의 ETF 상품 브랜드입니다.

2022년11월30일 기준
준법감시인 승인필 202211-2ETF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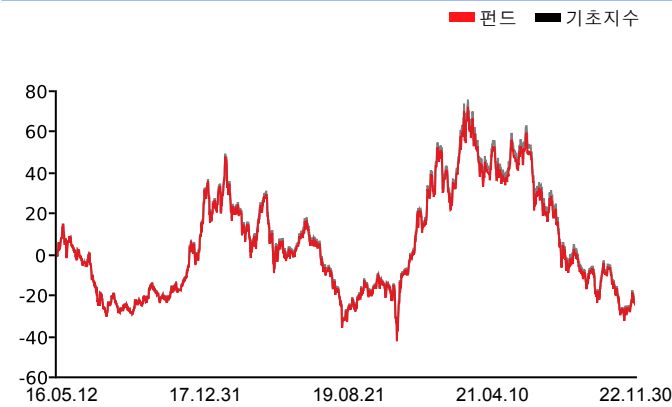
FnGuide 바이오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ETF입니다.

누적수익률 (%)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후	연초이후
KODEX 바이오	3.27	-11.95	-18.02	-34.44	-23.92	-36.89
기초지수	3.32	-11.85	-18.03	-34.75	-22.88	-37.27
기초지수 대비	-0.05	-0.10	0.01	0.31	-1.04	0.38

※ 분배금 재투자율 가정한 세전 수익률 기준입니다.

수익률 그래프 (%)



※ 분배금 재투자율 가정한 세전 수익률 기준입니다.

※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 비중 (%)

의약품	81.39
의료정밀	12.13
서비스업	6.48

상위 10종목 (%)

클래시스	2.96
바이오니아	2.62
일동홀딩스	2.60
제이시스메디칼	2.51
일동제약	2.51
대원제약	2.35
네이처셀	2.29
씨젠	2.29
휴마시스	2.28
에이비엘바이오	2.28

※ 포트폴리오 구성종목은 PDF구성내역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보유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 위험 등급 : 1(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편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수소개

FnGuide 바이오 Index는 수명연장과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의 차세대동력으로 평가받는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바이오 사업 혹은 그와 관계된 사업을 회사의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여 산출합니다.

※ 정기변경: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기본정보

펀드명	삼성 KODEX바이오증권 ETF[주식]
기초지수	FnGuide 한국바이오지수
펀드순자산총액	341.33억원
1주당 NAV	7,901.14원
총 보수	연 0.45%(지정판매 0.02%, 집합투자 0.39%) (신탁 0.02%, 사무수탁 0.02%)
최초 설정일	2016.05.12
상장일	2016.05.13
배당	배당금 발생 시 분기별
운용회사	삼성자산운용
사무수탁회사	한국에탁결제원
수탁은행	국민은행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방법	유가증권 시장을 통한 매도,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해지에 의한 환매 ※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정보

거래소	한국거래소
표시통화	원
거래단위	1주
설정단위	80,000주
거래소코드	244580
ISIN코드	KR7244580007
블룸버그 Ticker	244580 KS <Eq>

투자분배금 지급현황

지급기준일	분배금액(원)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본 자료는 펀드의 단순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써, 본 펀드의 투자광고 및 투자권유를 위해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삼성자산운용 홈페이지 게시 외에는 본 펀드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에게 투자광고 또는 투자권유의 목적으로 제시되거나 제공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해 삼성자산운용은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원금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금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